

콜금리 동결 ... 물가안정에 무게

韓銀 금통위 발표... 6개월째 연 5.00% 유지

세계 금리인하 대세론에 동참 가능성 전망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2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했던 금통위는 9월부터 여섯 달째 콜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금통위가 회의 종료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는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담은 문장이 포함되지 않아 다음달에도 콜금리가 현재의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점증하는 경기하강 리스크와 물가불안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일단 물가안정 쪽에 무게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물가안정에 방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3.6%에서 올해 1월 3.9%를 기록하는 등 두달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5~3.5%)를 넘어서었다.

물가상승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어

세계적으로 금리인하가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한은도 결국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순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낮춰 정책금리를 연 4.25%에서 연 3.00%로 떨어뜨렸고 영국 중앙은행도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5.25%로 조정했다.

결국 한은이 내외금리차의 확대에 인해 초래되는 국가간 자금흐름의 불균형을 계속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리인하 전망의 주요 근거다.

이에 따라 시장은 한은이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금리인하를 준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하 대열 동참할까=하지만

세계적으로 금리인하가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한은도 결국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순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낮춰 정책금리를 연 4.25%에서 연 3.00%로 떨어뜨렸고 영국 중앙은행도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5.25%로 조정했다.

결국 한은이 내외금리차의 확대에 인해 초래되는 국가간 자금흐름의 불균형을 계속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리인하 전망의 주요 근거다.

이에 따라 시장은 한은이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금리인하를 준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하 대열 동참할까=하지만

기업, 올해 투자 15%로 늘린다

조선·일반기계·섬유업종 증가율 가장 높아

상의, 제조업 520곳 조사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완화 효과 등에 힘입어 투자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올해 국내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 가까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대기업 115개, 중소기업 365개 등 전국의 5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조사'에서 '올해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71.5%에 달했고 투자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평균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8%, 중소기업은 13.5% 투자규모를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 증가율은 조선업종이 2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기계(19.5%), 섬유(17.1%), 철강·금속(15.4%), 석유·화학(14.6%), IT·통신·전자(13.1%), 자동차·부품(11.9%) 등 순이었다.

올해 예상되는 투자절차별로는 '원자재 가격상승'(49.4%)에 이어 '환율불안'(16.5%), '선진국 경기둔화'(11.0%), '고유가'(10.6%), '금리인상'(10.4%) 등이 꼽혔다.

한편 산업은행은 13일 제조업 21개 업종, 1천270개 업체와 비제조업 13개 업종, 692개 업체를 상대로 올해 상반기의 기업금융채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의 100.3보다 낮은 99.5로 나타나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을 하향 가능성 커"

韓銀총재, 물가상승 압력 지속 경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경기 하강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모두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경기흐름이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는 만큼 당분간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상황변화를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 (통화정책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뭘 고를까

미련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 총창로 한 상점에는 연인에게 줄 초콜릿·사탕 등 선물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벼농사 수익률 해마다 떨어진다

지난해 30% 밑으로 하락

10a당 평균 수입 85만원

벼농사의 수익률이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 마저 30%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07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단위면적 10a(약 300평)에서 벼농사를 지어 얻은 수입은 평균 85만4천241원으로 2006년의 89만2천67원보다 4.2% 줄었다.

반면 생산비는 60만121원에서 60만7천354원으로 1.2%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이 24만6천887원으로 15.4% 감소했다. 총수입 대비 순수익의 비율인 순수익률도 32.7%에서 28.9%로 3.8%포인트 떨어졌다.

이같은 순수익률은 참깨(43.1%), 고추(37.8%), 마늘(34.6%), 양파(31.2%) 등 다른 주요 작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생산비중에서는 비료비, 농약비, 농기구비, 토지임대료(임차료 등)가 각각 8.7%, 5.5%, 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지역(67만1천원) 생산비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61만3천원), 강원(58만6천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이 생산비 1위에 오른 것은 이 지역 농지수요가 많아 토지임대료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순수익률

음식점 등 대금결제시

카드 정보복제 '주의'

고객이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넨 사이 카드정보를 훔치고 이를 토대로 카드를 복제해 부정사용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의 최근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위조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를 좀 더 신중히 관리해달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신한카드의 이번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으로 주유소와 음식점을 꼽았다. 회원이 직원에 카드를 건네주면 위장 취업한 직원이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복제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습득한 뒤 이를 토대로 카드를 복제하는 방식이다.

◇연평균

1월 광주·전남 투자자 거래 활발

거래량 4억9천만주·거래대금 3조 ... 전달보다 13% 늘어

지난달 국내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대금은 각각 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억9천만주, 3조1천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거래량과 대금이 각각 12.6%(5천500만주), 13.9%(3천84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국내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함에 따라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횟

■1월중 광주, 전남 주식투자자 주식거래 실적 상위 10종목 (단위: 천주, 억원)

종목	평균거래량	종목	평균거래량
STX팬오션	16,155	대우증권	89,260
SK증권	13,054	하이닉스	63,717
유진투자증권	11,089	미래에셋증권	61,075
동양증권	10,326	LG필립스CD	52,683
피스텍	5,175	현대건설	49,723
일경	4,636	SK증권	48,008
진흥기업	3,873	동양제철화학	47,787
일신석재	4,041	현대증권	45,493
현대증권	2,687	현대중공업	40,328
대호에이엘	2,735	삼성전자	40,367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

수는 글로벌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한달새 각각 272.45P, 95.39P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STX팬오션의 평균거래량이 1천615만 5천주로 가장 많았으며, SK증권(1천 305만4천주), 유진투자증권(1천108만 9천주), 동양증권(1천32만6천주)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은 에듀박스(914만4천주), 이화전기(792만주), 제이콤(635만6천주), 신전개발(465만주), 중앙디자인(506만8천주)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차 휘발유값 300원 인하

한나라, 관련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3일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의 휘발유나 경유값을 300원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1당 300원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것으로,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현재보다 1당 300원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지급하되, 나중에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에 제시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kg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다.

◇연립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국회 재경위, 특별공제 폭 45%서 80%로 확대

국회 재경위는 13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에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주고 매년 4% 포인트씩

공제폭을 늘려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해주는 법안에 의견집근을 봤다고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원은 주택거래 등록세를 폐지해 거래액의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40원/kg)를 폐지하는 특수세법 개정안도 2월 국회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함께 일합니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스텔스*	생산직 (아르바이트) (정규) [월130만원 이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14	062-351-6052
한국인포에이티*	광주 스키어리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4	062-360-0503
*서울항공여행사	여행사 경력직 시인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15	062-225-3636
*대영	공사 감독 및 공무원형 행정 감독	대졸/경력무관	2400~2600	02/15	062-670-0321
*대창 E&T	개통업무/회계 및 관리 업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5	062-383-6831
*소모홀딩스	자동차 LPG 충전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7	062-672-2833
*빅미트	2008년 매장관리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19	062-650-2203
*선일모터스	자동차 판매영업직 시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9	062-384-8337
*휴로넷	[고정급148만원]SK텔레콤(광주)멀티CRM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2/20	011-299-7000
*성진케미칼	산입체 간호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0	062-943-8115
남해종합개발	(건축/기계/안전/전기/소방/관리) 경력사원	초대졸/경력	회사내규	02/22	062-220-2514
에리트경영연구소	일반 사무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2/23	062-514-0887
인재시스템	연구용 분석기기 기술영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384-6711
시스템뱅크	[광주]System Engineer 신입 및 경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42-256-618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내년 2월부터 저축銀·지역 농협·새마을금고 펀드 판매

내년 2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만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 관련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립뉴스